

東北亞變化와 漢半島

— 統一環境의 모색과 關係해서 —

신 정 현

경희대

I. 序 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의 國際政勢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國際關係는 언제나 變化를 本質的 特性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의 변화만큼 그 심도나 규모에 있어 큰 경우는 戰後의 國際關係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최근의 國際政勢의 변화는 革命的인 것이라고 규정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변화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國際關係는 다양한 變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변화한다. 그런 이유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규정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포괄적인 개념적 틀속에서 變化의 일반적인 양상을 도출해 보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최근의 國際關係변화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美·蘇간의 신데탕트의 전개이다. 전후의 國際關係는 미국과 소련의 두 超強大國들간의 경쟁과 갈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그들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東西對立과 紛裂을 조성해 오는데 기여해 왔다. 그것은 바로 冷戰體制로 集約될 수 있었다.

그러나 戰後의 냉전체제는 적어도 1960년대 말에 들어서 부터 소위 데탕트(和解)現象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개념상 데탕트란 개별 국가들이 그들간의 關係에서 自制와 協力

을 증진시키고 또 다양한 紛爭과 갈등을 武力에 의존치 않고 對話와 協商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미·소간의 戰略武器制限協定(SALT I, II)의 체결과 미·중국간의 關係改善 그리고 월남戰의 종결 등은 바로 데탕트의 出現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말에 들어서 부터 미·소간의 관계는 다시 硬化되는 傾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로 다시 국제관계 전반에서 冷戰的 現像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의 직접적인 계기는 1979년 말에 있었던 소련군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이었다. 이런 현상을 新冷戰의 등장으로 규정했다.

이어 1980년대 중반이후 부터 美·蘇關係는 다시 데탕트의 傾向을 띄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레이건行政府의 집권 제2기에의 돌입과 소련에서의 새로운 리더십인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등장과 때를 같이했다. 이로서 新데탕트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新데탕트는 미국과 소련이 다 같이 상호갈등과 對立의 限界를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內的인 必要性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美國은 점증하는 財政 및 貿易上의 赤字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國際的 地位의 저하에 직면하게 되었고, 소련은 惡化되어가는 경제침체와 「革命體制」의 不動性(Immobility)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상호관계를 새로이 데탕트로 전환시키는데 共通된 利害關係를 갖게 되었다. 이로 부터 國際關係는 전반적으로 對立과 분쟁을 지양하고 대신 協力과 安定의 국면으로 진전되게 되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팔목할 만한 변화는 社會主義國家들의 과감한 內的 改革과 外的 開放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한 東西關係의 질적인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戰後에 소위 自由主義世界를 대항해서 형성되었던 「共產主義世界」를 구성하고 있던 소련·중국 및 東歐國家들은 더 이상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와 理念을 유지할 수 없게된 나머지 예상하기 힘든 과격한 體制改革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西方國家들과의 外交的, 經濟的 關係를 擴大해 나가게 되었다. 특히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1986년 2월에 열린 27次 黨大會에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를 黨의 公式的인 政策으로 채택함으로써 社會主義國家들의 改革과 開放은 일층 더 가속화될 수 있었다. 이 黨大會에서 고르바초프는 모든 국가들이 각기 그들 자신의 發展方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東歐國家들의 獨自的 改革路線의 선택과 탈소화 추진을 용이하게 했다. 그 결과 전후에 형성된 東

西關係는 무의미하게 되었고 세계는 보다 더 완전한의미에서 脫冷戰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끝으로 국제관계의 변화양상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세계를 軍備增強의 악순환으로 부터 해방시키려는 움직임의 증대이다. 미국과 소련을 포함해서 세계의 다수 국가들은 核武器의 發達로 인해 그들간의 갈등과 군사적 대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것인가에 대해 같은 정도의 위협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들간의 군사력우위확보를 위한 軍備競爭이 상호억제 보다는 위협의 정도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인식을 가능케 했다. 그에 따라 최근의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세계는 점차 全面戰의 위협으로 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국제정치적 변화추세와 관련하여 東北亞地域의 국제관계는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아직 미·소관계나 유럽地域體系의 변화와 같은 뚜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東北亞地域에 있어서도 前後 冷戰體制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질서를 형성하는 方向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이 地域의 構造的 特性이나 戰略的, 經濟的 重要성에 비추어 일반 국제정치상의 변화가 東北亞地域의 변화에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가능해 진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東北亞地域의 변화양상이나 조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論議의 편의상 東北亞地域의 국제관계를 검토할 때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4大強國들간의 상호작용관계와 韓半島內的 상황을 分離해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II. 東北亞지역의 국제관계

東北亞地域은 세계 여타 지역에 비해 軍事戰略的인 면에서나 經濟的 能力面에서 매우 특징적인 要素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군사전략적인 면에서 東北亞地域이 주목을 끌게 되는 이유는 이 지역에는 미국, 소련, 中國, 日本 등 소위 4大強國들이 첨예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복잡한相互作用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미국, 소련, 中國은 核保有強國들이며 나머지 日本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의 能力을 갖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東北亞地域의 경우처럼 세계 최고수준의 軍事力을 가진 국가들이 비교적 한정된 지역에서 서로 對立과

競争과 協力の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그 만큼 東北亞地域이 매우 복잡한 戰略的 狀況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뿐만 아니라 東北亞地域은 經濟的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의 다른 어떠한 국가들 보다도 日本이 급속히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그결과 세계경제에서 主導的인 地位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경제성장률이나 무역규모, 국제자본유통 및 海外直接投資 등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은 주지하는바와 같다. 예를 들면 1960년도에 日本의 세계경제 총생산중의 점유율은 3%에 불과했으나 1986년에는 1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美國은 1960년도에 33%였으나 1986년도에는 20%로 떨어졌다. 2000년까지 日本의 세계 총생산의 점유율은 1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中國도 현재의 추세로 나아간다면 2010년에서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韓國의 경제능력과 합쳐 볼 때 東北亞地域의 경제력은 세계 어느 지역에 비해 매우 월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결국 東北亞地域이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그의 변화양상이나 조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戰後의 東北亞地域에 형성되었던 冷戰構造는 1970년대 美·中國和解를 계기로 변질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들어 새로이 變化의 움직임을 더해가고 있다. 이것은 世界的 水準에서의 新데탕트의 出現과 社會主義國家들의 革命的인 變革, 그리고 그에 따른 東西關係의 질적인 변화등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東北亞地域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양상이나 조짐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들에서 검토될 수 있다.

1. 構造的 多元性增大

전후에 형성된 東北亞地域의 냉전적 갈등구조는 1970년대 初에 들어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몇가지 要素들에 의해 기인되었다. 이미 1960년대에 들어서 표면화된 중·소 분쟁과 日本의 경제부흥 등은 東北亞地域에 있어서의 兩極體系의 構造的 分化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背景의 要因들이 될 수 있었다. 이어 1970년대 初에 있었던 미·중국간의 和解와 日本·中國간의 外交關係樹立은 東北亞地域의 冷戰構造를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개선됨으로서 적어도 강대국간의 관계에서 東西對決 構造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다. 그 대신 東北亞地域에서의 세력관계는 보다 더 실질적인 개별국가들의 安保利益에 따라 재편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中國은 소련의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戰略的 利害關係 속에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한편 미국은 월남戰의 종결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종래의 封鎖政策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中國과의 화해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로서 東北亞地域에 있어 4大強國들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것은 冷戰體系下에서처럼 이데올로기적 갈등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개별국가의 獨自的인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한 多元的인 세력관계의 형성이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강대국들의 安保戰略的인 이해관계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부터 국제정치상에 나타난 신데탕트의 현상과 소련 및 中國을 비롯한 社會主義國家들의 革命的 變化속에서 東北亞地域體系는 일층 더 확고한 기반위에서 그의 構造的 多元性を 증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미국과 소련은 協商과 妥協의 원칙하에 東北亞地域의 安定과 平和를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공통의 利害關係를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과 소련도 1989년 5월에 열린 頂上會談을 계기로 쌍무관계를 正常化시킴으로서 이 지역의 安定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東北亞地域의 구조적 多元性は 強大國들간의 관계에서 두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나는 4大強國들이 과거와 달리 보다 더 自由롭고 獨立的인立場에서 그들의 對外政策的 또는 戰略的 利益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4大強國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이 지역에서 소위 霸權(Hegemony)을 잡을 수 있는 支配的 勢力(dominant power)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4大強國들의 이 지역에 대한 對外政策的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나아가 이것은 東北亞地域에서의 強大國들간의 새로운 戰略的 均衡體制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만 한 것은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新思考(New Thinking) 外交이다. 국제관계에 관한 그의 新思考外交는 모든 人類가 직면한 지구적 문제들(global problems)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규모의 協力を 필요로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새로

은 認識과 方法이 요구된다고 고르바초프는 주장하였다.

그러한 新思考外交가 소련이 大東北亞政策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표명된 것은 1986年 7월에 행한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의 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아시아, 태평양 國家임을 분명히 했으며, 따라서 中國, 日本, 韓國 등을 포함한 아시아 國家들과 과거와 다른 새로운 關係를 形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연설에서 주목할 것은, 소련이 軍事力膨脹에만 치중했던 과거의 이 지역에 대한 政策이 失敗했음을 인정하고 그 대신 外交, 經濟面에서 아시아 國家들과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을 밝힌 점이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對東北亞政策方向은 1988년 9월에 행한 크라스노 야 르스크 연설에서도 진일보한 형태로 다시 강조되었다. 특히 이 연설에서는 아시아, 太平洋地域의 안보와 平和를 위한 소련의 기본입장이 이지역에서의 군사력감축을 목표로 하여 천명되었다.

여하튼 東北亞地域에 대한 소련의 新思考外交는 中國과의 관계정상화와 경제교류의 擴大를 가능케 했으며 전반적으로 전후에 형성된 東北亞地域體系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要因이 되고 있다.

2. 高位政治에서 低位政治로

東北亞地域의 국제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변화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國家의 對外政策上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國家들의 對外政策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익이 高位政治(High Politis)적 측면에서 보다는 低位政治(Low Politis)적 측면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상 고위정치란 한 국가의 對外政策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戰略이나 過程이 이데올로기적 혹은 군사전략적 측면에만 큰 비중을 두는 경우를 뜻한다.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은 국가들간의 군사동맹이나 군사적 경쟁, 이데올로기적 對決과 反目 등이다. 이에 반해 低位政治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군사전략적 요소들이 아니라 貿易등의 경제관계나 사회문화교류 등이 國家들간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또 이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國家의 對外政策目標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가들 간에서는 과학, 기술, 경제, 자원, 문화 등 제 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交流와 協力에 관한 문

제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低位政治現象은 단지 東北亞地域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4大強國들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대세계의 일반적인 국제관계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역에서 특별히 취급되는 이유는 강대국들간의 低位政治的 關係가 이지역의 국제관계에 새로운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東北亞地域의 새로운 여건들이 이 지역에서의 低位政治 關係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그러한 여건들 중에는 ① 日本의 제2경제대국으로의 등장, ②중국, 소련의 開放化政策추구, ③ 미·일간의 무역마찰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中國과 소련이 추진하고 있는 國內經濟開發과 對外經濟協力は 이 지역에서 國家들간의 經濟交流와 협력을 확대시키는데 필요한 여건들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소련은 方法이나 戰略上的 差異는 있지만 국내경제 침체를 주목하기 위해 西方先進國家들로 부터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幅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中國은 1970년대 말 부터 4대現代化計劃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개혁하여 경제특구를 설치하는등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으며 日本과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왔다. 소련도 고르바초프의 등장을계기로 改革과 開放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西方國家들과의 경제교류에 관심을 두 었다. 특히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블라디 보스투크 연설에서와 같이 「太平洋 經濟協力」(Pacific economic Community)에 참여할 의도를 표명했으며 또한 그의 크라스노 야트스크 연설에서는 극동 및 시베리아開發과 관련하여, 日本 등 아시아國家들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그 결과 무역이나 合作 등 경제교류 및 협력면에서 4大強國들간의 상호관계는 훨씬더 擴大되고 있다. 예를 들면 日本의 대중소 무역량은 1980년에는 각기 약 94억불과 46억불이었던 것이 1986년에는 약 1987억불과 61억불로 늘어났다. 1990년대까지 연간 50%이상 증가되었다.

한편 미·일경제관계에서는 연간 약 600억불에 달하는 미국의 對日貿易赤字로 인해 쌍방간의 무역마찰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간의 쌍무적 관계에 至大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일간의 貿易戰爭이라고 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경제관계는 두나라간의 안보전략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여하튼 점증하는 4大強國들간의 경제관계는 전반적으로 그들간의 경제적 相互依存性을 증대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東北亞地域의 기존의 安保戰略狀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미에서는 점증하는 經濟的 相互依存性은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간의 軍事戰略的 利害關係의 對立과 경쟁성을 둔화시키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新地域秩序의 모색

아직도 東北亞地域에서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지만 다른 한편 많은 領域에서 그의 종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도 冷戰體制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秩序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이미 그러한 움직임은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東北亞地域에서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지만 군축이나 軍備統制의 추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소간의 중거리핵무기(INF) 폐기 협정의 체결과 전략무기감축회담(START) 그리고 유럽에서의 在來式 武器와 핵무기 감축에 관한 협상 등은 東北亞地域에서의 군축이나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함께 재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소련의 움직임은 주목할만 하다.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블라디 보스톡 연설이래 수차에 걸쳐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핵무기 배치를 중지할 것을 주장했으며, 크라스노 야르스크의 연설에서는 소련연안과 일본, 중국, 韓國 등을 포함하여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協商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소련은 일방적으로 兵力을 감축하거나 해외주둔군을 철수시킬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中國과의 境界地域과 베트남, 아프카니스탄 등에서 군사력을 철수시켰다.

소련의 군축과 관련된 제안들은 아직 美國, 中國 및 日本 등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世界的 水準에서 미·소간의 군축에 관한 협정들이 이루어질 경우 東北亞地域의 안정과 平和를 위한 새로운 지역질서의 구축과 관련해서 중요한 論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포괄적인 東北亞地域安保體制의 구축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東北亞地域體制의 특징중의 하나는 이 지역을 포괄하는 다변적(Multilateral) 안보체제가 확립되어 있

지 않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럽의 경우 1975년 헬싱키(Helsinki) 협정을 통한 지역안보 체제의 포괄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었지만 東北亞地域에는 아직 그와 같은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지역에는 雙務的水準에서 同盟條約體制들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最近에 소련의 고르바초프大統領이 제안하고 있는 「전 아시아 포럼」(all-Asian forum)의 개최는 특별하는 의미를 갖는다.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 포럼은 단계적 준비과정을 거쳐 그리고 관계국가들간의 일련의 地域會議나 예비會議(Working conferences) 등을 거쳐 개최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다. 이것은 소련이 1975년 헬싱키會議의 모델을 아시아지역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며, 멀티는 1960년대 후반에 브레즈네프가 제시했던 「아시아集團安保體系案」을 재현 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제안은 미국, 중국 및 日本 등에 의해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거부되고 있다.

셋째는 地域的 經濟共同體의 形成에 관한 제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미 美國과 日本의 學界와 政界에서 제안한 環太平洋構想(The Proposal for Pacific community)은 東北亞地域에서의 경제협력체의 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직 東北亞地域에서 유럽共同體와 같은 경제 협력체의 구성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이 지역 國家들간의 經濟的 相互依存性의 증대현상을 고려해 볼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우기 日本이 계속 경제대국으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중국과 소련의 改革과 開放政策이 실효를 거두게 될경우 이 지역 국가들간의 무역과 경제 협력은 더욱 擴大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東北亞地域에서도 經濟協力體나 共同體와 같은 지역적 경제통합체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Ⅲ. 韓半島狀況

주변 東北亞地域體系가 대체로 多元化와 和解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韓半島內的 상황은 여전히 不確實하고 不安定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韓半島內에서의 南北 韓 分斷構造는 상당한 정도로 냉전적 대결과 경쟁의 要素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계속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 南北韓은 상대방의 存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平和共存까지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특히 北韓은 平和共存原則이나 南北의 政治的實體에 대한 인정을 韓半島에서 두개의 「朝鮮」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南北韓이 다 같이 統一問題를 平和的으로 해결하려는 데는 같은 見解를 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南韓이 현실적으로 쌍방간에 깊은 不信의 벽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北韓과의 관계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데 반해 北韓은 일괄적, 급진적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다. 統一方案에 있어서도 南韓은 「韓民族 共同體 統一方案」의 경우에서 처럼 「南北聯合」의 설치와 같은 中間段階過程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高麗民主聯邦制 統一方案」에서 聯邦制 실시를 최종적 통일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상황은 政治的 側面 이외에 군사적 측면에서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된다. 그것은 비교적 좁은 地域에 군사력이 고도로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休戰線을 중심으로 남북한은 전체 약 140만명에 달하는 兵力(남한 : 약60만, 북한 : 약90만 혹은 그 이상)을 배치시켜 놓고 있으며 또한 매우 現代化된 武器들을 保有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와같이 엄청난 군사력을 배치시켜 놓고 있음에도 남북한은 계속 軍備 增強에 관심을 두고 실제로 戰力을 강화시키고 있는 점이다. 남한은 연간 GNP의 약 6%를 그리고 北韓은 약 20% 정도를 軍事力強化에 사용하고 있다.

南北韓간에 계속되고 있는 軍備競爭은 무엇보다도 상호불신에 있다. 특히 남북한 간에는 1950년의 한국전쟁과 같은 무력충돌의 경험이 있었고 또 그 후 여타의 도발적 행위들이 일어남으로써 상호불신과 敵對感이 증대하게 되었다. 더우기 남북한 쌍방간에는 個別的 安全을 위한 保障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手段으로 군비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南北韓은 다 같이 平和的 統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北韓은 아직도 革命統一戰略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南韓은 경직된 反共이데올로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다. 즉 「革命」과 「반공」의 대결구조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조장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한반도에서 밀집화된 군사적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남북한은 각기 다양한 方案들을 제시했다. 남한은 南北韓當局者간의 會談開催를 비롯해서 상호불가침 조약체결, 平和定

그리고 군비통제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北韓은 역시 한반도의 군사문제해결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至大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北韓은 休戰이 成立된 이래 남북한쌍방의 상호감군과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해왔고, 休戰協定의 平和協定으로의 대체와 韓半島의 非核地帶化, 軍縮協商의 개최 등을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제안들도 아직도 韓半島에서 군사력을 감소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措置들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南北韓이 각기 不安定한 安保狀況에 처해 있기 때문에 쉽게 군사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없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韓半島의 군사적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4만여명에 달하는 美國兵力의 南韓에 주둔이다. 南韓은 美國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雙務的으로 共同防衛體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駐韓美軍은 오히려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인다. 나아가 駐韓美軍은 한반도와 東北亞地域에서 戰爭의 위협을 억제하는 效果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戰略的 價値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반면 北韓은 駐韓美軍이 남북한 갈등의 주요 要因이고 나아가 統一을 저해하는 要因이라고 규정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1987년 7월에 北韓은 남북한 군사력의 축소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협의하기 위한 「韓半島」에서의 단계별 군축실현을 위한 多國籍 軍縮協商을 제의했다.

한편 南北韓간의 정치적 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平和的 統一의 접근과정으로 간헐적으로 대화와 접촉도 있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와 接觸은 점차 다방면에 걸쳐 擴大되었다. 1970년대 初에 分斷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南北對話의 時期가 있었고, 그후 1980年代 중반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쌍방간의 對話와 協商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南北韓關係를 正常化시키거나 통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아무런 成果도 가져오지 못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南北韓간의 대화와 접촉이 주변 국제관계의 變化와 無關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1970년대 초 美中國간의 和解關係가 시작되는 시기에 南北對話가 이루어졌었으며, 1980년대 중반이후에 들어서도 新데탕트의 出現과 더불어 南北韓간의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었다. 이것은 南北韓對話나 협상이 아무런 成果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주변 東北亞地域의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남북한이 군사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對話와 交流를 통해 平和的 統一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方法을 통해서든 相互信賴(Mutual Confidence)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代案들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남북한간에 신뢰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 한 그 代案들은 남북한 쌍방이 다 같이 받아들이지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 수준에서든 혹은 雙務的 水準에서든 남북한간에는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結 言

韓半島의 內的 狀況을 포함한 東北亞地域의 국제관계는 兩面性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편에서는 和解와 協力을 증진시키는 상호작용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對立과 갈등의 냉전적 국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東北亞地域體系는 冷戰과 脫冷戰의 두가지 요소들이 중첩되어 불확실성을 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소간의 新데탕트關係의 유지와 社會主義國家들의 改革과 開放은 東北亞地域에 있어서의 국가들간의 관계를 脫冷戰의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4大強國들간의 관계가 일정한 틀속에서 일치된 原則과 절차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東北亞地域體系의 脫冷戰化는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韓半島가 平和的 方法에 의해 統一을 실현해야 한다고 전제할 때 그러한 東北亞地域의 국제관계는 統一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南北韓統一이 韓民族 스스로의 힘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命題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주변환경이 그와같은 命題의 실현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에 統一에의 接近은 훨씬 더 용이해 질수 있다. 실제로 주변 국제환경이 南北韓 스스로의 平和統一接近을 뒷받침해 주지 않거나 支援해 주지 않을 경우 南北韓의 統一實現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韓半島狀況은 그 만큼 東北亞地域의 戰略的 狀況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和解와 協力을 지향하는 東北亞地域體系는 韓半島内外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의 위협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南北韓 쌍방간의 平和共存과 신뢰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환경이 제공될 경우 南北韓은 쌍

방간의 對話와 협상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특히 南韓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北方政策」에 있어 어떤 실질적인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미 南韓은 소련 및 中國과의 비공식 관계의 확대와 東歐圈國家들과의 修交로 상당한 成果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評價됨).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北韓의 統一接近戰略이고 다른 하나는 南韓의 對內外的 狀況變化에 대한 인식체계이다. 北韓은 統一戰略으로 對南解放이나 革命論理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北韓이 계속 그와 같은 論理속에서 對南政策이나 전략을 추구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南北韓對話나 統一에의 平和的 接近은 아무런 成果를 가져올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南韓의 주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인식과 評價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東北亞地域의 국제관계가 韓半島의 平和的統一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 할지라도 새로이 전개되는 전략적 상황을 南韓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으로 分斷問題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인 政策代案들은 마련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그의 실천을 위한 행동양식도 合理的으로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시대상황이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와같은 認識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有用한 처방과 적응능력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